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봉행됐다. 이날 진제 종정예하하는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이 인류에게 장군죽비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호 기자

광화문 30만 대중 “우리 모두 부처”

5월16일 세계평화기원 무차대회
1700년 한국불교사 최대법회 성료
종정예하 ‘참나’ 법문 간화선 진수
총무원장 ‘불교적 통일방안’ 선언
종로일대에선 연등회 장엄등 물결

한국불교 역사상 최대 규모 법회로 기대를 모은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이하 무차대회)’가 원만하게 회향했다. 5월16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은 전국에서 모인 31만 사부대중의 무차(無遮)의 서원으로 물들었다. 또한 서울 도심에 가득 메운 사부대중의 웅장한 염불소리는 한국불교의 지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지구촌 주요 종교지도자들은 세계평화기원 선언을 통해 종교간 화합으로 인류에 희망을 선사하겠다고 다짐했고,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한반도 통일선언을 발표하며 남북통일을 위한 종단의 노력을 약속했다. 무차대회 주관자 진제법원 종정예하하는 ‘참나’를 일깨우며 종단의 정통수행법인 간화선의 진수를 선보였다. 법문은 ‘스스로 부처이며 모두가 부처’라는 선언으로 갈무리됐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서 ‘아무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었다.

평거미가 질 무렵부터 이미 인산인해를 이뤘다. 31만. 광화문 앞부터 서울시장까지 2km에 달하는 광화문대로는 전국에서 찾아온 불자들이 넘쳐났다. 식전행사는 각국에서 찾아온 스님들의 담마토크, 풍물패와 무용단의 진혼제, 예불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수십만 명이 지극 정성으로 외는 석가모니불 정군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오후 8시 법고 소리가 서울의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가운데 주요 내빈들이 광화문 앞에 마련된 특설도랑에 올랐다. 이어 종단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인 진제 종정예하가 환호

를 받으며 입장하면서 본대회가 문을 열었다. 조계사에서 들려오는 평화의 타종(打鐘)은 영원한 안락과 행복을 바라는 일체중생의 간절한 마음을 묵직한 법음으로 전했다.

이어 한반도 통일을 향한 불교계의 발원을 천명하기 위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연단에 섰다. 총무원장 스님은 ‘한반도 통일선언’을 발표하며 일심(一心)과 합심(合心)을 기반으로 한 불교적 통일방안을 제시했다. “민족동질성 회복과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는데 앞장서겠다”며 “한국불교는 공존, 상생, 합심의 통일논리에 따라 민족동질성 회복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 불교문화재 복원사업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로 “불자 여러분께서 통일을 향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달라”며 종단의 의지에 화답했다.

이번 대회의 가장 큰 의의는 산중에서 은둔하던 선(禪)이 광장으로 내려와 소통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엔 진제 종정예하의 법어가 있었다. 5분간의 입정(入定)으로 거대한 침묵이 흐르던 참나에 사자후가 터졌다. ▶A4면에 계속

▶관련기사 A2-5면, B1, 12-13면
장영섭 기자 fuel@bulgyo.com

봉축특집 ‘평화’ 60면 발행

■ 1주제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고은-정병조 ‘평화’를 말하다 A12~13면
헤민스님이 띄우는 편지 A25면
다시 세우는 서원 A33면

■ 2주제 ‘다시 초심으로’

중요무형문화제 연등회 B1, 12~13면
일운스님 월암스님 초발심 일기 B8~9면
송해 조영남의 젊어지는 비결 B18~19면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종정 진제 법원

원로회의의장	밀은	총무원장	자승
중앙종회의장	성문	교육원장	현웅
호계원장	자광	포교원장	지원



대한불교조계종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